

광주시, 창업지원 기반시설 삼각벨트 완성

스테이지 이어 성장지원센터·스타트업허브센터 준공
기술 실증·시제품·투자 유치까지 전주기 체계 가동

광주시가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본격 기동한다.

창업 기반시설을 단계별로 구축해, 아디어 밸굴부터 기술 실증과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본촌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3월 광주역 창업밸리 내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를 잇달아 준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을 연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테이션)를 중심으로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의 완성을 의미한다.

삼각벨트 구축을 통해 광주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빛고을창업스테이션)는 예

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는다.

기술창업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초기 단계를 중점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난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대·중견기업 협업 모델 개발, 해외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했다.

현재 31개 전문 지원기관이 입주해 창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기술창업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초기 단계를 중점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난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대·중견기업 협업 모델 개발, 해외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했다.

현재 31개 전문 지원기관이 입주해 창

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합 창업 생태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정이다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는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전담하는 핵심 거점이다.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 실증, 투자 유치, 기업 간 협업이 한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성장 허브'로 운영되며,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들 창업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장 진출 이전 단계에서 제

품과 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창업 공간 확충을 넘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해 '부강한 광주' 실현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은 "창업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광주는 창업 기반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창업이 실제 성과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해 '부강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날개'…최대실적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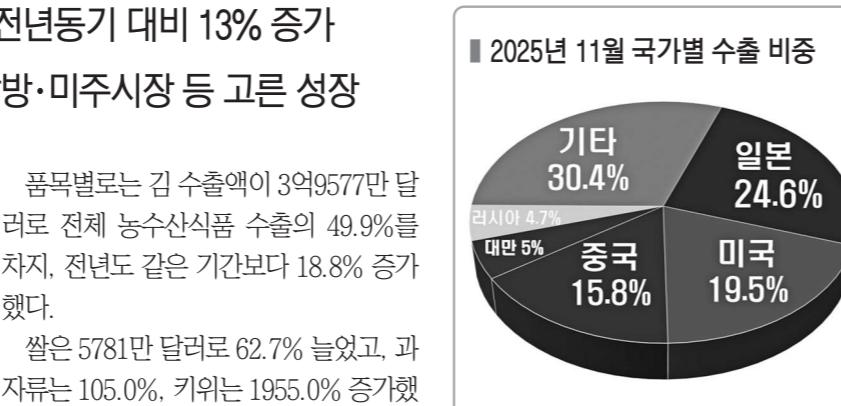
작년 1~11월 7억9000만 달러…전년동기 대비 13% 증가
김 3억9577만 달러 '최다'…신남방·미주시장 등 고른 성장

전남 농수산식품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수출시장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 9375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6.5%)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이번 실적은 김과 쌀, 과자류, 오리털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미국·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과 함께 베트남·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도 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3억 9577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의 49.9%를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쌀은 5781만 달러로 62.7% 늘었고, 과자류는 105.0%, 기위는 195.0% 증기했다.

국가별 수출은 일본 1억 9527만 달러, 미국 1억 5483만 달러, 중국 1억 2538만 달러 순이었다.

중국 수출액 가운데 김 비중은 37.0%

수출액은 4683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보다 64.8% 증가했다.

신흥시장인 동남아에서도 성과가 뚜렷했다.

유럽 지역 수출도 24.3% 증가했다. 김과 커피제품 수출이 늘며 독일 604만

달러, 폴란드 1391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목포가 1억 6698만 달러로 전체의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주 1억 3205만 달러, 고흥 1억 884만 달러, 신안 9691만 달러 순이었다.

영광(254.4%), 화순(174.9%), 함평(161.4%), 무안(63.1%), 여수(48.1%), 담양(46.3%), 해남(44.6%) 등 대부분 시·군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과 쌀 등 전략 품목의 경쟁력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며 "2026년에는 1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적불금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 신흥국 마케팅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병오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해제면을 찾아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방문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하며 농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병오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해제면을 찾아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방문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하며 농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배 작물 전환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해제면은 애플망고 등 고부가가치 작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과 농협 전남본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배 기술 지원과 판로 확대 등 마케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아열대 농산물 광역브랜드 '오매향'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병강 농협 무안군지부장은 "무안군과 농협이 긴밀히 협력해 '오매향' 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농민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GICON, 지역 창업기업 'CES 2026' 참가 지원
레피소드(주)·㈜블루캡슐, 혁신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창업도약페스티벌' 지원사업의 글로벌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인 레피소드(주)와 ㈜블루캡슐의 'CES 2026' 현장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약기 창업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2개 기업은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ICT 융합 박

제시하고 있다.

GICON은 두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K-Startup 통합관 내 개별 부스 운영 지원, 항공료·숙박비 등 기업당 최대 300만 원 체계비 지원, 현지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1인 1사 전담 통역 배치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우리 지역의 유망 창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을 공략한다.

레피소드(주)는 음성과 이미지 등 멀티 모달(Multi-modal) 원격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업무 시스템을 공개

해 차세대 비즈니스 환경의 미래 비전을

했다.

김은지 기자 rizoyb@gmail.com

광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반등'

1월 '71.4' 전월비 27.0p ↑…기준선은 밀돌아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심리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말 3년 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분양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밀돌아 실질적인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주택사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광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4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4.4) 대비 27.0p 상승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4.1p ↑)에 이어 상승폭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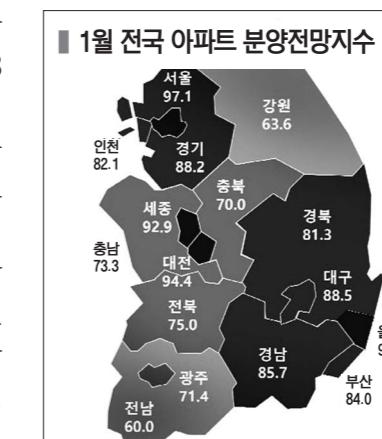
분양전망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분양전망지수가 44.4까지 추락하며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15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도 미분양 누적과 수요 회복 지연이 겹쳐 분양시장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전남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전남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0으로 전월(50.0) 대비 10.0p 상승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전월 대비 12.7p 상승했다. 고현율 기조가 이어지며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률과 전망지수도 92.2로 7.8p 상승한 반면,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96.9로 4.7p 하락했다.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광주·전남 모두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밀돌아,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4로 전월 대비 14.1p 상승했다. 수도권은 89.2로 22.1p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비수도권은 78.6으로 12.5p 상승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전월 대비 12.7p 상승했다. 고현율 기조가 이어지며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률과 전망지수도 92.2로 7.8p 상승한 반면,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96.9로 4.7p 하락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농협은행, 'NH미래성장 기업대출' 출시

최고 연 2.30%p 우대금리 제공



NH농협은행은 미래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과 기업집단 대상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NH미래성장 기업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고 연 2.30%p 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도권을 제외한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30%p 까지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이

지정한 미래성장 산업은 인

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바이오,